
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	미추홀의 사람들				
사업개요					
구술자명	성준호	성 별	남	출생연도	1957년
면담자	표기자	소 속	미추홀구 시민기록단	감독자	성준호
면담장소	주안3동천주교회		면담지원	전윤경	
면담 일시	2024년 11 월 9 일	회 차	1	시 간	2시간
자료번호					
구술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생활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. - 경찰일을 하는 동안 미추홀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성실함과 앞만 보고 살았음을 인식함. - 경찰에서 은퇴한 후 종교를 갖게 되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 실천을 하고 살려한다. - 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다. 				
주요 색인어	부모님. 아내. 쌍룡아파트. 신기촌. 학익동. 어릴 적 놀이. 너른 들판. 도둑놈 잡기 놀이. 민원. 경찰 일. 지옥철. 푸쉬맨. 범죄자. 성실. 은퇴식. 감사패. 술. 종교. 성경. 제 2의 직장. 출퇴근 길 풍광. 성경. 봉사. 대부. 봉헌 미사. 여행. 행복.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
1. 시작 멘트				00:08~00:30	[비공개]
2. 구술자와 면담자 인사					
3. 성장기 시절 부모님에 대한 기억				00:28 ~ 10:44	
- 남대문 시장, 유랑극단, 방앗간, 탄광 등의 사업으로 재산을 잃기도 하심. - 어렸을 적 산에 올라가 함께 운동도 함. - 무슨일을 시작하려면 계획과 체계성이 있어야 함을 아버님을 통해 배움.					
4. 배우자와의 인연 계기와 결혼 생활				10:44 ~ 21:32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를 통해 소개 받아 결혼 함 - 부부 간 마찰이 생길 경우, 부인이 한 템포 지난 후에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큰 싸움은 안하게 됨. - 경찰직 은퇴식에서 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써서 전달함. 		
<p>5. 미추홀구 신기촌 아주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.</p>	<p>21:32 ~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추홀구에서 서울 직장까지 전철로 출퇴근 - 전철 1호선 일명 지옥철이라 할 만큼 복잡했음. 	<p>25:32</p>	
<p>6. 신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학익동 동네 이야기</p>	<p>25:32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익동 신기촌은 옛날에 너른 산과 들판였음 - 동네 아이들과 도둑놈 잡기 등 맘껏 뛰놀음 - 시급치 받, 중국사람들 많이 많았음. - 요즘 아이들 집안에서 PC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안타깝다. 	<p>~29:55</p>	
<p>7. 현재 두 번째 직장인 학익동 운전면허학원에 출퇴근하는 이야기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걸어서 40분 걸리는 직장에 걸어다니다 보니 풍광도 보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효과. - 성당 앞으로 지나다니며 성모님상에 인사 - 학익동 주변 풍광을 보며 걷는 시간이 좋다. - 현재 직장생활하며 경제 활동하는 것이 너무 좋다. - 일, 학습, 봉사, 경제활동을 하는 삶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주 이상적이다. 	<p>29:55 ~ 36:47</p>	
<p>8. 자녀들 이야기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0년 대 경찰일을 시작했는데 집안일,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바빴다. - 아이들 문제는 웬만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. - 요즘 젊은이들 결혼 기피나 출산기피는 우려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구조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기엔 어려운 여건이다. - 요즘 젊은이들 소비성향을 구술자 본인 젊었을 때하고 비교하며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한다. - 구술자는 젊었을 적 여름 휴가 때 가까운 송도유원지로 다녔음 - 승용차는 직장생활 25년 차에 구입함 - 자녀 출산 기피로 병역자도 부족함. - 	<p>36:47 ~ 47:37</p>	
<p>9. 경찰직에서 정년퇴직하고 현재 두 번째 직장</p>	<p>47:37~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찰에서 은퇴하고 6개월 쉬고 두 번째 직장에 취업 - 경제활동하고 있는 지금 만족. 	<p>49:47</p>	
<p>10. 경찰 재직 시 이야기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0년 대 민주화운동 시절 화염병 이야기. - 동료 경찰의 죽음을 보며 민주화운동에 회의적이기도 했음 - 일에 대한 사명감에 남의 일인데도 본인이 나서 범인 검거했었음. - 승진에서 탈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변 조언으로 결국 승진하게 된 적도 있었음 - 그 후 후배들 승진 기회가 있을 시 적극 도와줌. 	<p>49:47 ~ 01:04:27</p>	
<p>11. (5분 휴식 후 면담 다시 시작) 경찰 재직 시 기억에 남는 사람</p>	<p>00:11 ~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죄자 이야기 	<p>08:29</p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혼 후 배신 한 배우자 때문에 모든 것 잃고 낙심하고 휴식 차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죄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회복하고 나온 어느 범죄자가 기억에 남음. 		
<p>12. 예전 경찰 업무와 현재 경찰과 비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업무 체계성은 있으나 업무 자체는 더 힘들어짐 -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마다 권리 주장이 강해져서 잦은 민원에 대응하기 힘들어짐. - 		08:29 ~ 11:00
<p>13. 옛날로 돌아간다면 경찰일을 다시 하고 싶으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절대 안하고 싶다. - 자식들이 경찰일을 하는것도 반대. - 제복입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다. - 		11:00 ~ 14:23
<p>14. 은퇴식 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퇴 전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고민 - 귀촌 생각해 봤지만 노후는 적합지 않다. - 술 끊어야겠다 - 종교를 갖어야겠다. - 천주교를 선택한 이유 - 박해를 이겨낸 역사적 배경을 인지함 -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함. - 경제활동은 계속해야겠다. 		14:23 ~ 27:53
<p>15. 성경 말씀을 실천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례 대부님이 뇌질환으로 쓰러진 후 대부님 회복을 지향하는 미사를 1년 넘게 봉헌하고 있음. - 대부님 회복을 위한 성경 한 구절 읽어 주심. - ‘청하면 들어주신다’ 		27:53 ~ 36:28
<p>16. 여태까지의 삶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느 순간보다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이 평생의 행복이다. 		36:29 ~ 46:34
<p>17. 마지막 더 하시고 싶은 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 2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그 동기를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성경말씀을 인용해서 ‘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’로 답변하심. 		
공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비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분 공개	
활용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 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 동의	
특이사항		